월간 책호스터

창간 준비호 · 0호

눈에 갇힌 밤, 무엇을 읽을까

02 여는 글

03 이달 읽은 책

05 알라딘 6주 순위

07 이달의 추천

09 새로 나온 책

10 카톡 봇 첫 달

11 진술 셋 · 거짓 셋

12 닫는 글

여는 글

한 달에 한 번,
책장 앞에서 만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은 하루면 피드 아래로 흘러갑니다. 한 달 동안 읽고, 순위를 지켜보고, 독자분들께 받은 질문을 한자리에 모아 두고 싶었습니다.

정식 창간은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여 드리려고 창간 준비호를 냅니다. 이후로는 매달 첫 주 토요일에 나옵니다.

매호에는 그달에 읽은 책, 알라딘 일본 추리·미스터리 순위 한 달 정리, 계절에 맞춘 추천, 새로 나온 책, 그리고 직접 지은 추리 퍼즐 한 편을 담습니다.

책의 결말과 트릭은 이곳에 쓰지 않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분도 마음 놓고 넘기셔도 됩니다.

— 책호스터이프로 드림

미미소기

미쓰다 신조 · 현정수 옮김 · 북로드 ★★★★★

눈을 감아도
피할 수 없는 공포

가제본이 「어째서요?」 한마디에서 끊겨 버려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정식본에는 그 앞에 서장이 하나 더 있고, 그 화자는 작가 미쓰다 신조 본인입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들리는 것」의 무서움이었습니다. 내리지 않는 비의 소리, 담장 너머의 노랫소리, 계단 위의 소곤거림. 작가가 직접 등장하는 페이크 다큐 같은 구성이라, 다 읽고 책을 덮은 뒤가 더 무서웠습니다.

이야기가 이야기를 불러오는 괴담, 특히 작가 시리즈를 좋아하셨다면 권합니다.

이달 읽은 책 · 2

미네르바의 보복

미키 아키코 · 문지원 옮김 · 블루홀식스 ★★★★☆

임대료 걱정까지 생생한 리걸 미스터리

변호사가 사건을 쫓는 이야기는 많이 읽었지만, 사무소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까지 이렇게 생생한 미스터리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이야기, 국선 변호의 적은 보수, 매달 쌓이는 임대료. 법률사무소 안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로 오래 일한 작가답게, 이야기가 시간순으로 흐르지 않는데도 구성이 치밀하고 논리의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리즈의 주인공 무쓰기 레이는 분량이 적은 편이지만, 결국 진상에 닿게 하는 사람은 그녀입니다. 아쉬운 점은 범인 쪽인데, 개인적으로 공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미스터리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권합니다.

1위는 6주 동안 세 권이 나눠 가졌습니다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10월 5주	11월 1주
투명한 나선	미미소기	투명한 나선	축복하는 요메쿠비	축복하는 요메쿠비	축복하는 요메쿠비

11월 1주 TOP 10

1	축복하는 요메쿠비, ‘괴민연’에서의 기록과 추리	미쓰다 신조 · 리드비
2	파라오의 밀실	시라카와 나오후미 · 북다
3	인버트 2	아이자와 사코 · 비채
4	투명한 나선	히가시노 게이고 · 북다
5	전보 예고 살인 사건	오카모토 요시키 · 톰캣
6	하늘 너머 반짝이는 일곱 개의 별	가노 도모코 · 내친구의서재
7	악의	히가시노 게이고 · 현대문학
8	1차원의 삽목	마쓰시타 류노스케 · 반타
9	미미소기	미쓰다 신조 · 북로드
10	지지 않는 벚꽃	유즈키 유코 · 문예춘추사

순위 해설

한 달을 버틴 책, 새로 들어온 책

3주 연속 1위 — 축복하는 요메쿠비

10월 29일에 나와 그 주에 바로 1위에 올랐고, 11월 1주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쓰다 신조는 같은 표의 9위(『미미소기』)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6주 내내 20위 안 — 8권

투명한 나선 · 1차원의 삽목 · 이상한 지도 · 미미소기 · 악의 · 705 · 매스커레이드 라이프 · 가공범

11월 1주에 새로 들어온 책

미네르바의 보복(14위, 11월 9일 출간) · 가족극(17위) · 인버트(18위, 『인버트 2』와 함께 1권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프로의 한 줄

10월은 『투명한 나선』과 『미미소기』가 1위를 주고받다가, 『축복하는 요메쿠비』가 나오자마자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여섯 주를 버틴 여덟 권 가운데 절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입니다. 새 책이 꼭대기를 바꿔도, 순위의 바닥은 여전히 히가시노가 받치고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눈에 갇힌 밤

길이 끊기고, 전화가 안 되고, 아침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곳. 겨울에 읽기 좋은 클로즈드 서클 네 권입니다.

별 내리는 산장의 살인

구라치 준 · 검은숲 중급

눈에 갇힌 산장에서 펼쳐지는 정통 논리 추리.

고전적인 설정의 논리 추리를 좋아한다면

가면 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 재인 입문

산장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펼쳐지는, 가볍게 읽히는 본격 추리입니다.

산장 배경의 고전적 추리를 좋아한다면

밀실 황금 시대의 살인

가모사키 단로 · 리드비 중급

밀실이 법이 된 세계에서 벌어지는 산장 밀실 승부.

밀실 트릭과 가벼운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싶다면

출구는 없다

테일러 애덤스 · 밝은세상 입문

눈보라 속에 갇힌 휴게소의 숨 막히는 서스펜스.

폐쇄된 공간의 긴장감을 좋아한다면

더 고르고 싶다면

카카오톡 「책호스터이프로」 채널에서 「책 추천받기」를 누르고 「눈 오는 산장」처럼 말해 보세요. 500권이 넘는 목록에서 세 권을 골라 드립니다.

새로 나온 책

10~11월에 나와 순위에 오른 책

축복하는 요메쿠비, ‘괴민연’에서의 기록과 추리
미쓰다 신조 · 김은모 옮김 · 리드비 · 10월 29일

인버트 2
아이자와 사코 · 김수지 옮김 · 비채 · 11월 2일

미네르바의 보복
미키 아키코 · 블루홀식스 · 11월 9일

축복하는 요메쿠비

기록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추리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미쓰다 신조다운 괴담 추리입니다. 겨울밤에 한 장씩 아껴 읽기 좋습니다.

인버트 2

2권이 나온 주에 1권까지 다시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기다린 분이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영매 탐정이 이번에는 어떤 길로 진상에 닿을지 기대됩니다.

미네르바의 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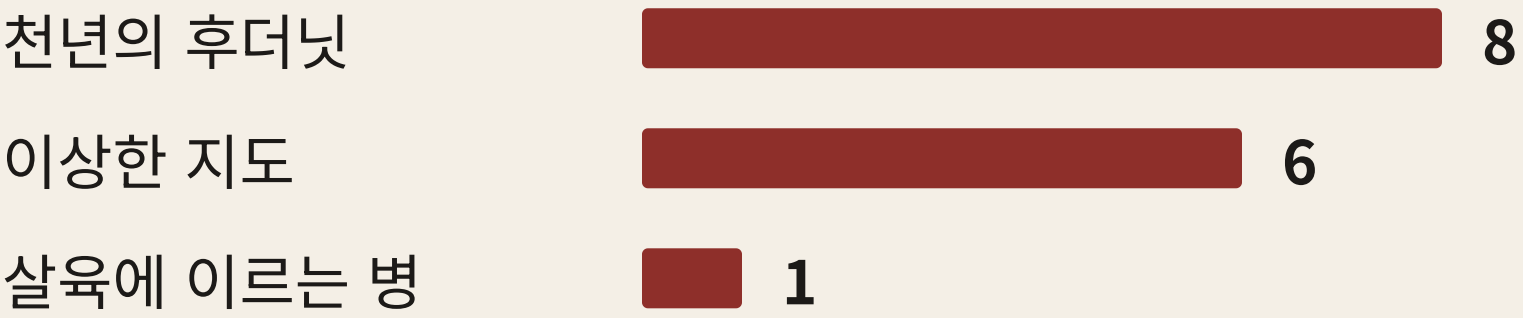
이달 읽은 책 4쪽에 서평을 실었습니다.

카톡 봇 첫 달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은 책

10명
말을 걸어 주신 분

16개
책 내용 질문



첫 달이라 숫자가 작습니다. 그대로 적어 두고, 다음 달과 견주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없어요」를 받은 책 요청도 모아서 어떤 책을 먼저 준비할지 정합니다.

진술 셋 · 거짓 셋 — 오리지널 사건

눈 내린 문학관, 사라진 초판본

확인된 사실

1. 눈은 밤 11시에 내리기 시작해 아침 7시에 그쳤다.
2. 새벽 2시부터 2시 30분까지 건물 전체가 정전이었다. 비상등은 없다.
3. 서재 열쇠는 둘. 관장의 열쇠는 밤새 침실 금고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서 윤이 늘 가지고 다닌다.
4. 아침 7시 반, 서재 문은 잠긴 채였고 초판본만 사라졌다.

사서 윤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나올 때 벌써 눈이 쌓이기 시작해서 차는 두고 걸어갔죠. 열쇠는 밤새 제 가방 안에 있었고요.」

묵고 간 작가 한

「새벽 2시 15분쯤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복도 불빛 아래로 서재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고, 창밖 주차장엔 눈을 뒤집어쓴 차가 한 대 서 있었죠.」

관리인 박

「눈이 그친 새벽 5시에 마당을 쓸었어요. 서재 창은 안에서 걸쇠가 걸려 있었고, 창 아래 화단도 손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진술마다 거짓이 하나씩 있습니다. 셋을 찾고 나면 남은 참말이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초판본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닫는 글

창간호는 12월 5일 토요일

창간호(12월호)에는 11월 한 달 순위 정리와 겨울에 읽을 새 책, 그리고 이번 퍼즐의 정답과 풀이를 싣습니다. 그 뒤로는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찾아갑니다.

카카오톡 「책호스터이프로」
책 추천받기 · 책 내용 묻기 · 월간호 받기
pf.kakao.com/_pBhxeX

카톡 채널 바로 가기
책장 홈페이지 bookhoster.co.kr

의견과 다음 호에 다뤘으면 하는 책은 카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 주세요.